

土種 홍화씨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왜 좋은가?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지리신지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계 품종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우리 가락 어깨춤에 불심도 '들썩'



○천안 불광사 남도소리·풍물 감수에는 2백여명의 참가하고 있어 포교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문화포교 현장 2곳

전통문화도 배우고 신심도 다지는 포교현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천안 불광사(주지 대일)와 대전 우리문화예술원(원장 범우)은 지역 문화의 활성화와 포교 미당 확산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는 곳. 남도민요와 풍물, 직법과 민속무용 등 전통문화를 매개로 하는 포교현장에서는 배우는 즐거움으로 똘똘한 불심이 이웃을 향한 봉사의 순찰로도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편집자 주>



○대전시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대충동에 자리한 우리문화예술원은 불교의식무와 전통춤으로 포교하는 도량이다. 범우스님은 28일 대전 우송회관에서 공연을 갖는다.

현재 두달과정 기생 '공부' 1년동안 8백여명 배출 봉사활동등 자비실천도

"덩 덩 덩덩, 덩 덩 덩덩..."
 "아, 그게 아니지요. 원수를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덩 덩 덩덩..."
 3월 29일 오후 2시, 천안시 쌍용동 아파트 한자리에 자리잡은 불광사 지하법당. 50여명의 불자들이 풍물계 불려야 할 장구와 장, 풍과리, 북으로 형성되는 사물의 기본 장단을 익히고 남도산성이나 제주도 타령, 남도성주들이 같은 남도민요도 10여 곡 익히게 된다. 종급반이나 고급반으로 올라가면 율리 가락과 선 풍물을 배

천안 불광사 '풍물놀이 강좌'

울 수 있다. 민요는 호남이나 사물가, 강상풍물 같은 단가까지 배운다.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전통 가락과 남도 소리에 일가견을 가질 수도 있는 이 강좌에 첫발을 내딛은 50여 불자들은 무엇을 배운다는 기대감에 마냥 들떠 있다. 대부분 주부들이지만 초로의 신사들도 어깨를 들먹이며 어설픈 장단을 익히기에 바쁘다.
 첫 강좌에 나온 불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풍물과 소리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통가락을 배우며 감수생들이 각종 봉사활동을 펼칠기 때문이다.
 불광사는 작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풍물과 남도소리를 가르치며 큰 포교 효과를 얻고 있다. 2개월을 단위로 강좌를 여는데 6기까지 8백여명이 다녀 갔다. 초급반에 들어 온 사람들은 종급고급으로 반을 옮겨가며 실력을 쌓는다. 전통문화 강좌를 인연으로 모인 사

람들은 대부분 불광사의 일일법회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불자가 된다. 6기 수강생 중에는 시각장애인이 7명이나 있었고 타종교인들이 개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전통문화 강좌는 단순한 감수의 지리가 아니라 인간애를 나누고 불심을 기르는 수행의 도량이기도 한 셈이다.
 주간반과 야간반,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뉘어진 했지만 2백 여명의 수강생들이 마음을 모아 결식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으고 무의탁 노인들을 찾아가 쌀배달사와 밀반한 보시를 하고 있다. 이미 강좌를 다 마치고 재법 역량을 다진 선배 불자들이 한 단계 더 높은 봉사를 한다. 정월대보름에 중앙시장에서 대동놀이를 하고 양로원이나 경로당 등 노인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 풍물 공연도 한다.
 이들이 풍물과 남도소리로 마련하는 노인잔치는 천안지역 노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열'이 자랑하는 대외활동 중의 하나는 종교간 화합을 위한 이벤트다. 종교간의 대화와 이해를 위해 불광사 '열' 가족들은 타종교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량과 감자를 보시고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나 성당에 성탄축하 방문을 하기도 한다.
 불광사 인근 아파트에 사는 조남순, 박미경 주부는 "노인잔치를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 우리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소리와 풍물도 가르쳐 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라며 "아직은 어색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일일일 법회에도 다닐 생각"이라 말했다.
 전통문화도 배우고 불심도 기르는 불광사 풍물과 남도소리 강좌는 천안 지역 신도들의 아파트 포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대전 우리문화예술원

'대전의 명동'이라 불리는 대충동 골목.
 요즘은 대전의 주요 상권이 둔산지구로 옮겨가는 바람에 대충동 골목이 조금 말려 있지만 대전시는 이 골목을 전통문화의 거리로 개발할 계획이다.
 대전지역의 새로운 문화 거리가 될 이 골목의 남쪽 끝에 자리잡은 우리문화예술원, 불교의식무와 민속춤 등 전통문화를 포교의 매개로 활용하는 포교 전진기지다. 송암스님에게 법과와 마라춤 나비춤등을 사사 받고 이매방 선생에게 승무와 살풀이춤을 이수 받은 범우스님(현불사주지)이 불교 전통춤을 통해 문화포교의 장을 열었다. 3월 현재는 10여명의 주부들이 매일 오후 2시에 모여 스님에게 전통무용의 기본 동작을 배우고 있다. 잘 단장된 문화원 마루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을 반복하며 손놀림과 걸음걸이를 연습하는 중년의 수강생들은 진지하기만 하다. 각 동작과 몸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는 스님의 정성도 보통이 아니다. 30여 명의 마루바닥을 수 없이 오가며 몸 동작을 익히지만 힘지는 않은지 자세를 교정해주는 스님의 손은 바쁘지만 하다. 그러나 가르치는 스님이나 배우는 수강생들이나 모두 즐거운 표정이다.
 우리문화 예술원은 주부나 직장인들을 위한 감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무용을 전문가들만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인식의 벽을 먼저 허물고 포교 재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범우스님은 "전통무용의 원류가 불교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포교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감수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은 한결같이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범우스님 범패등 강의 5월부터 민요·다도교실 강습생 실행조직화 계획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의 동작을 배워 나가는 재미에 빠져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단채로 정기적인 강좌를 여는 외에도 스님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스님들을 위한 개인교습 시간을 내기도 하는데 포교의 방편이므로 수강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다만 예술원 운영을 위한 약간의 회비를 시주 받을 뿐이다.
 범우스님은 요란하게 소문을 낼 시간도 없었는데 벌써 10여명의 수강생이 모여 든 대서 문화포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스님이 직접 감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강생들은 20여 년간 농익은 스님의 무용을 쉽게 배울 수 있다.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춤은 범고춤, 바라춤, 나비춤, 승무, 살풀이, 선비춤, 허반춤 등이다. 5

글=임연태 기자
 (ytm@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buddhania.com)

"포교엔 여러 방편 있어요"

"사람들을 잘로 오게 하고 절에 온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 전법을 하도록 해야 제대로 포교가 되죠. 이 같은 효과를 다 얻기 위해서 전통문화를 매개로 삼은 것입니다."
 천안 불광사주지 대일스님은 "전통문화야말로 포교의 방편으로 가



불광사주지 대일스님

장 적합한 요소"라 강조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저 이렇게 해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로 시작한 풍물과 남도소리 강좌가 인근 아파트촌의 명물이 되었다"는 대일스님은 "술치하 저도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감성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만들고 수강생들간의 친목도모 기회도 만들어 내는 모습이 고맙기만 하다"고 털어놓았다.

"한 동작 한 동작이 곧 수행"

불교전통무 감수 범우스님



이제 막 문화포교의 출발선을 떠난 범우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시대라 말 하는데 포교 방법은 아직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진단하며 "생활의 패턴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사람은 정서를 순화하고 문화교육을 충족시켜 주는 프로그램 개발에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 전통 의식무는 스님들만의 공부라 아니라 불자들이

이 이해하고 직접 시연할 때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확신한다.
 "불교의식무를 한 동작씩 배우는 그 자체가 수행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행의 체면을 통해 신심도 다지고 우리의 전통문화도 이해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 몸 태워 광명의 세계로

불화와 성화비고 33장면

춧불



○해인사 김로탱 중 '일곱여래와 제단(부분)', 1723년.

춧불은 예배 축하 탄생 결혼 죽은 등 경건한 의식에 사용된다.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이 환하게 밝혀진다. 제 몸을 태워 빛을 내는 춧불은 그래서 무명과 탐욕을 몰아내고 어두운 사바세계를 밝혀 지혜를 일깨우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상징물로 쓰이고 있다.
 불은 원시종교 이래로 종교의식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생명의 존엄을 위해 불이 갖는 중요성이 종교의식에서 신성애의 귀나 열원의 매개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춧불은 그러한 불 숭배정신의 축소판으로 종교의식에서 원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축재에는 춧불 예배인 춧불의 행진이 있고 부활절이나 추분사에서 '밝히는 춧불은 그리스도의 영원불멸한 신성의 표시이다. 초콜 태우는 광심은 그 흔, 불꽃은 신성으로 해석한다. 기독교에서는 악마가 나타나 춧불을 끄면 천사가 다시 불붙여 준다고 믿는데 이때의 초는 불멸의 순교정신을 상징한다.
 왼쪽 그림은 불단에 놓여진 다기 과일 꽃 쌀 등 각종 공양물과 함께 춧불이 켜진 모습이다. 오른쪽 그림은 성모 마리아의 임종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성경책과 묵주, 춧불이 켜져 있다. 그림(예천 법화암 주지)



○반 불레베작 '성모 마리아의 임종(부분)', 1520년경. 윌헴미슬란 소장.